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 : COVID-19 비확진자 대상으로

양정하, 이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Pandemic Experience of Infectious Diseases of Nursing Students : Targeting non-confirmed COVID-19

Jeongha Yang, Yunju Le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비확진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 2020년 4월 14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을 통해 '걱정을 담고 있는 일상의 연속', 'COVID-19에 빼앗긴 일상 속 투쟁', '두려움과 기대심리에서의 갈등', '외로움과의 싸움', '변경된 수업운영 방침에 대한 혼란과 적응',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처능력의 향상' 및 '성장의 발판'의 총 7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결론 : 간호대학생은 팬데믹 상황속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응하며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진로정체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는 계기로 살고, 자신의 삶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추후 자가격리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과 COVID-19 장기화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키워드 : COVID-19, 간호대학생, 현상학, 팬데믹, 대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nature of the pandemic experience of an infectious disease among non-confirmed COVID-19 nursing students. Methods: From April 14 to April 23, 2020,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ursing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Results: Seven categories emerged through experiences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among nursing students. The specific categories are 'the continuation of daily life containing worries', 'struggle in daily life lost by COVID-19', 'conflict in fear and expectation', 'the fight against loneliness', 'confusion and adaptation to the changed class management policy', 'improving the ability to cope with a new phase', 'a springboard for growth'. Conclusion: Nursing students suffered psychosocial difficulties in a pandemic situation, but they adapted and led them to a positive direction. they lived as an opportunity to have time to check their career identity and tried to supplement their lives. We propose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elf-isolation and the natur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in prolonged COVID-19 situations.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Phenomenology, Pandemics, Cope

1. 서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2020년 1월 14일 41명이 확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Yunju Lee(daminzimin@naver.com)

Received November 19,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8,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진되었다는 발표 이후 중국 전역, 한국, 아시아 국가, 유럽, 북미 등으로 확산하여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1]. 전 세계적으로 53,164,803명[2], 우리나라의 경우도 28,546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493명으로 보고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게 되자 COVID-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4]하여 관리를 시행하였다. 1월 27일 '경계' 단계로 상황 조정[5] 후, 2월 18일 31번째 슈퍼전파자가 발생하고 지역감염사례가 속출하자 2월 23일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황 조정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을 시작하였다[6]. 대구지역 중심의 급증하는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대란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 COVID-19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급증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정부는 COVID-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2020년 3월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대국민권고안을 시행하게 되었다[7].

전례 없는 전염병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전략과 관련한 이슈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안[8]과 '언택트 사회' 가속화에 대한 대응 전략[9]을 보고하고 있다. 팬데믹은 교육시스템의 개편[10]을 가져왔는데,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11]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재택수업을 기반으로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이 도래되었다[12]. 국가 차원의 정책적 영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원격수업을 전격 도입하였고, 대학도 대부분 이를 준용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수업 운영 실태와 사례연구[13]와 학생 만족도[14,15]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더불어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대학생의 경험[16],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유형[17] 등의 교육 수요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어려움[12]도 보고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교수학습의 주체 모두에 관한 다차원적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18]. COVID-19 장기화로 일반 국민들은 우울감, 무기력증,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 도입은 대학생들의 심리적·환경적·행동 양상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20]. 또한, 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우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감염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동시에 윤리적 의무, 환자에 대한 사명감,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21-24]. 더불어 환자 간호와 비밀유지, 치료의 질관리 책임과 의무 다하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과 공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5, 26].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은 의료인에게 감염의 위험성을 견디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며[26], 다수의 의료인도 흔쾌히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하였다[27].

COVID-19의 팬데믹에 대한 범국민적 노력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간호대학생은 예비의료인으로서 졸업 이후 감염병 관리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염병 팬데믹을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경험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COVID-19 상황에 대한 일반대학생의 경험[20]과 감염병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22, 24]는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의 윤리 인식과 윤리적인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28]가 진행된 실정으로 간호대학생에 전염병 팬데믹 경험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졸업 후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에서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에게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23]. 올바른 교육을 위해 팬데믹을 체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간호인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중재 전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Kim과 Hong[28]은 의료인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일반 대중의 기대로부터 의료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식 개선 노력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의식 개선 정

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체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교육과 의료인에 대한 의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을 겪은 간호대학생의 경험 의미와 그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Colaizzi[29]가 제안하는 인간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J대학 간호학과 학생이면서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비확진자 학생을 임의적으로 8명을 표본 표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얻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에 면담이 이루어졌다.

2.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8년간 질적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수회 참여하였고, 년 1회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경험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였으며, 학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연구참여자 모집 게시글을 탑재하여 신청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4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자료조사 하였다. 연구 자료는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에서는 개방적인 질문 COVID-19 전염

병 대유행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을 통해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화 및 녹음되어 기록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즉시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참여자가 연구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료수집 과정 동안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COVID-19의 팬데믹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포맷인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면담과 대면 면담 중 선택하여 면담하였다. 대면 면담의 경우 철저한 방역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개인별로 면담한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화 및 녹음하였고,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 진행 중에는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 참여자의 특징, 연구자의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에 연구자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말을 비판하거나 해석하는 태도를 지양하였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추가 질문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계획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고,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생생하게 면담 자료를 담기 위하여 녹화 및 녹음 작업을 세심히 관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 직후 자료를 필사하고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의 민감도를 높이고자 현장 노트 등의 이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를 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뒤 소정의 답례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참여자 1, 참여자 2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29]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진술 내용을 묶고 추상화시킨 후에 의미 있는 진술을 서술하였

다. 첫 단계로 필사한 면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 의미 있는 진술을 282개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에게 유사한 속성의 진술을 재진술하게 하며 다른 참여자의 필사 자료에서 비슷한 진술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 재진술 과정에서 유도된 의미를 구성하여 9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의미를 30개의 주제(Themes), 14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및 7개의 범주(Categories)로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는 주제모음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본질적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들어맞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파악된 본질적인 주제를 참여자에게 설명한 후 직접 읽게 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와 동일한가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본질적인 주제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30]가 제시한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 및 적용성의 측면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에게 자신의 진술이 분석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연구의 신빙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분석된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전염병 팬데믹 경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생성 가능한 여러 가지의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기술하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성찰하였고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만 집중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며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며 참여자들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질문을 반복하였을 경우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Colaizzi[29]가 제시한 6단계의 분석 절차를 준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이외의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연구

결과가 반복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와 선정기준이 일치하는 간호대학생 3명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결과에 공감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아 적용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은 20~23세 3명, 24세~26세 4명 및 32세 1명이었으며, 성별은 여성이 5명, 남성이 3명이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인터넷 뉴스를 통해 COVID-19 관련 정보를 취하고 있었다. 손씻기는 하루에 평균 9.2회, 손세정제 사용은 하루에 11.8회로 COVID-19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손씻기와 손세정제의 사용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비율은 평균 98%였다. 2월 23일 정부의 COVID-19 국민예방수칙의 가이드라인[6] 실천여부를 확인한 결과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항목은 전원이 실천하고 있었다.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는 참여자 중 7명이 행동수칙을 실천하였고,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의 경우 참여자 중 5명이 지침을 준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COVID-19 비확진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은 걱정을 담고 있는 일상의 연속, COVID-19에 빼앗긴 일상 속 투쟁, 두려움과 기대심리에서의 갈등, 외로움과의 싸움, 변경된 수업운영 방침에 대한 혼란과 적응,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처능력의 향상, 성장의 발판의 7개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3.2 범주 1. 걱정을 담고 있는 일상의 연속

3.2.1. 실시간 변경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걱정이 증가함
이 주제모음은 '슈퍼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인한 불안감 증폭됨', '전염병에 의해 예상하지 않게 활동 계획이 변경됨', '주변인에 의한 2차 감염에 대한 걱정이 증가함',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실감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슈퍼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과 사망자에 대한 정보 등 COVID-19 감염상

황에 대해 대중매체 통해 알게 되면서 자신이나 주변으로 침범할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더 퍼지면서 사망자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맞는 건가 싶고, 아, 나는 그럼 뭘 해야 하나하고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참여자 1)

“부천 확진자 생겼을 때요. 아무래도 저희 동네고 제가 가는 범위 안에서 그 분이 다녀가신 곳이 있어서 진짜 완전 걱정이었어요. 혹시 내가 다녀간 사이에 그 사람도 다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제 친구들이 거길 다녀왔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안감이 가장 컸던 거 같아요.”(참여자 8)

3.2.2. 일상 그대로 지내고 싶어함

이 주제모음은 ‘아직은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임’, ‘잘 될거라며 초반에 안심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표면적으로 걱정을 하였지만 COVID-19 확진자를 접촉하는 경험이 없음과 연결 지어 대중매체에서의 보도와는 달리 낙관성을 드러내며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금방 없어지겠다,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마스크는 쓰는데 그래도 조금만 서로 주의하면 전파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어요.”(참여자 7)

“진짜 전염병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구나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뉴스에서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라는 소리를 하고 잘 예방해야한다 해서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참여자 2)

3.3 범주 2. COVID-19에 빼앗긴 일상 속 투쟁

3.3.1. 살아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함

이 주제모음은 ‘스스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섬’,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의 빠른 전염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확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졌다.

“메르스나 사스랑 코로나가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아, 이게 메르스나 사스보다 심하게 빠르게 퍼지고 환자가 급속하게 악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4)

“네이버 기사 한 면에 딱 뜨니까. 누르면 딱 걱정됐다, 그런 거 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참여자 3)

3.3.2. 전염병을 쫓는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봄

이 주제모음은 ‘정부의 감염대책에 대해 관심이 늘어남’, ‘정부의 감염통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가짐’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감염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시되는 관리방안에 집중하면서 현실성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우려하였다. 특히, 마스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걱정이나 불만이 확대되었다.

“다른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나서 감염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정부의 지침이 맞는 거 같아요.”(참여자 4)

“저도 처음에 화가 났다가 마스크 5부제 실시하고 그것도 처음에 화가 났었던 게 왜 두 장밖에 안 되지? 우린 가족이 몇 명이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지? 생각도 했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사라는 거지 했는데 주말에도 구입을 할 수 있긴 있더라고요.”(참여자 1)

3.4 범주 3. 두려움과 기대심리에서의 갈등

3.4.1. 나와 타인의 이기적인 모습과 마주함

이 주제모음은 ‘방역준수와 자유생활에 대해 심적 갈등이 발생함’, ‘실천하지 않는 이기성을 봄’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초반에 가진 감염 종식에 대한 낙관성은 감소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방역준수를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생활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에 방역지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염확산에 대한 위협감 이면에 자신의 제한된 삶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게도 되었다.

“강제로 약간 못 나가게 하니까. 억압 받는다는 느낌. 눈치를 보면서 할 건 다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중략)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만 집에 있

나, 나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인스타나 sns 보면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애들을 보며 한심하기도 하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올리니까 또 욕을 할 수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저도 앞으로 비교했을 때는 지키는 편인데 완전히 안 지켰다는 죄책감도 들고 눈치도 받고 그랬던 거 같아요.”(참여자 4)

“처음에는 저도 지키다가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 같아요. 처음에는 심각하구나 집에 줄 있자 하다가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평소처럼 나가게 되더라고요.”(참여자 5)

3.4.2. 미래 간호사로 살아가야 하는 길에 혼란해 함
이 주제모음은 ‘간호사로서의 길로 나섬에 대한 걱정과 혼란함’, ‘간호사에 대한 부족한 처우에 관해 관심이 증가함’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성취감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만나는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숭고함을 인식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현장 투입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힘든 가운데 일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임금 인상이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도 4년 뒤면 저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다른 직업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2)

“현장에 위험부담이 더 큰 분들은 간호사이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건 간호사인데.. 사람들한테서 천대 받아야 하는 건가. 그래서 처우 개선에 많이 관심이 갔던 거 같아요. (중략) 처우를 바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4)

3.5 범주 4. 외로움과의 싸움

3.5.1. 관계를 위한 심리적 거리가 멀어짐

이 주제모음은 ‘확진자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편견이 생김’, ‘접촉에 대한 거리감이 강화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특정 종교 슈퍼확진자 및 주변 확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원망함을 넘어서 혐오감과 짜증을 토로하였다. 감염 우려로 인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축소하면서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였다.

“왜 굳이 돌아다닐까, 집에만 앉아있어도 치료가 되고 그럴 텐데. 약간 그렇게 용서가 되진 않아요. 혐오감이 좀 옮겨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다가 5번 확진자가 남성분, 31번 신천지 그 분이요. 중국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왜와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베이징 이런 쪽 아니고 그런 쪽에는 막 더럽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참여자 7)

“마트보다 인터넷으로 장 보는 것이 늘었어요. 사람을 꼭 대면해야 되는 곳은 덜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배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생활의 큰 변화 같아요. 약속도 많이 취소하구요.”(참여자 2)

3.5.2. 원하지 않는 코로나블루와 마주함

이 주제모음은 ‘활동제한으로 인해 우울함’, ‘정서적 불안감이 늘어남’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COVID-19의 장기화로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어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포함한 우울함을 토로하였고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미래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였다.

“엄청 불편했어요. 답답해서. 벚꽃 같은 것도 구경을 가고 싶고 한테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까, 답답함이 컸어요.”(참여자 7)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슬프죠. 저는 마지막 학년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짐했는데 좀 제 다짐이 무너진 것 같고.”(참여자 8)

“걱정은 항상 있어요.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 불안감. 더 많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실습도 해야 하고 졸업도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되는 데.. 당장 중간고사도 걱정이고.”(참여자 1)

3.6 범주 5. 변경된 수업운영방침에서의 혼란과 적응

3.6.1. 선택사항이 아닌 비대면 수업방식에 맞추어야만 함

이 주제모음은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생겨나는 어려움에 불편함’, ‘비대면 학습으로 진행되는 미흡한 정책에 아쉬워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자료 제공 부족, 과제 증가,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

및 자기주도성의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상당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방식의 적용에 대한 정책모순을 꼬집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가까운 건 어떤 강의들은 아예 동영상도 제공을 안 해주고 다른 학교 강의로 대체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업이 와 닿지 않았어요.”(참여자 6)

“지금은 실습하니까 못 하는 게 좀 아쉽고 강의들이 평균적으로 짧아졌더라고요. 대면할 때는 두 시간 했던 게 한 시간이면 끝나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대학을 온 건데. 빨리 대면 강의를 해서 직접 듣고 싶죠. 질문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과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참여자 5)

“저는 노트북을 학교 오기 전에 사서 문제는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없는 사람들은 피시방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면강의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게 되는 건지.”(참여자 5)

3.6.2. 기대하지 않는 비대면 수업으로 기대가 생김
이 주제모음은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찾음’, ‘나에게 보다 집중하는 삶의 여유를 경험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초반에 힘들어하던 참여자들이 통학 시간의 감소, 자료 탐색 및 녹화영상 활용, 신기한 학습환경 등의 장점을 거론하며 만족해하였다. 더욱 생활에서의 시간적 여유를 통해 남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가족에게 더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제가 맞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다시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발표를 안 해서 좋았다? 발표 수업이나 조별과제가 없어서 좋았어요.”(참여자 3)

“오히려 아침밥도 잘 챙겨먹고 잘 안 나가게 되니까 새로운 취미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중략). 또 돈도 아낄 수 있고 해서 여유롭게 잘 즐기고 있어요.”(참여자 1)

3.7 범주 6.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처능력의 향상

3.7.1. 극복의 노력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함

이 주제모음은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집중함’,

‘건강유지 방안을 모색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대국민행동수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불편함이 있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면서 행동을 조절하였다. 전염병 확산 후 신체적·심리적 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만의 운동방법이나 비대면을 통한 소통 증가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발열 체크랑 마스크 착용, 방문자 기록하는 거는 꼭 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조금 귀찮은 것도 있어요. 계속 그걸 써야 하고 어딜 갈 때마다 쓰니까. 그래도 귀찮지만, 이 업주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참여자 8)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못 만나는 친구들한테 만나자고 하면 코로나 좀 없으면 안정되면 만나자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집이나 아파트 계단을 타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7)

3.7.2. 아는 만큼 방역수칙을 생활화함

이 주제모음은 ‘불편해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함’, ‘꼼꼼하게 손씻기를 실천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 귀 당김 등의 불편함이 있지만 최소한의 예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는 평소와 비교해 세정제나 비누를 통한 손씻기가 2배에서 10배까지도 늘었다고 말하였고, 참여자 일부는 COVID-19를 통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코로나가 비말감염이라고 하니까 마스크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방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해서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안전해서 좋았다는 느낌보다는 코에 막 여드름도 나고 귀도 너무 아프고 불편했죠. 깜박하고 안 하고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쓰고 나가고.”(참여자 3)

“확실히 손 씻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은 무조건 씻게 되고 더 신경 써서 씻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1.5배에서 2배는 늘은 거 같아요.”(참여자 6)

“책에서만 봤던 코호트 격리나 아니면 비말감염 이런 익숙한 감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문자들을 읽고 외우기만 했는데. 감염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참여자 6)

Table 1. Pandemic Experiences of Infectious Diseases of Nursing Stude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Increased anxiety due to the outbreak of super-spreader and the number of death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that changes in real time increases worry	The continuation of daily life containing worries
Action plan changed unexpectedly due to infectious disease		
Increased worries about secondary infections by others		
Realize the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pandemic		
It's still someone else's problem, not mine	Wanting to be the same as usual	Struggle in daily life lost by COVID-19
Relieved at the beginning that it will work out		
Find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by yourself		
Continuous observation of information		
Increased interest in government infection measures	Looking into the government's measures to combat infectious diseases	Struggle in daily life lost by COVID-19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infection control policy		
Psychological conflict on quarantine compliance and free life	Confronting the selfishness of myself and others	Conflict in fear and expectation
Seeing selfishness that is not practiced		
Worry and confusion about taking the road as a nurse	Confused about the way to live as a future nurse	
Increasing interest in poor treatment of nurses		
Prejudice arises rather than understanding of confirmed patients	Psychological distance for relationships is increasing	The fight against loneliness
Reinforced sense of distance to contact		
Feeling depressed due to limited activity		
Increasing in emotional anxiety		
Finding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classes	Expectations arise from unexpected non-face-to-face classes	Confusion and adaptation to the changed class management policy
The advent of a leisurely life		
Uncomfortable with difficulties arising from non-face-to-face classes	Must match non-optional non-face-to-face class method	
Disappointed by the insufficient policy of non-face-to-face learning		
Focus on the mindset to overcome	Efforts to overcome suggests the direction of solution	Improving the ability to cope with a new phase
Looking for ways to maintain health		
Even if it is uncomfortable, wearing a mask is made daily	Making quarantine rules a daily life as much as you know	
Practice meticulous hand washing		
Faced with a nurse struggling with an epidemic	Strengthen positive meaning in future nurse's life	A springboard for growth
Recognizing the nurse's sense of duty		
Increased belief in overcoming through an appropriate quarantine system	The power to move toward positivity gathers	
Expecting an optimistic direction		

3.8 범주 7. 성장의 발판

3.8.1. 미래 간호사의 삶에 긍정적 의미가 강화됨
 이 주제모음은 ‘간호사의 전염병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마주함’, ‘간호사의 사명감을 인식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COVID-19에 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간호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마주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런 행동의 기반인 간호사의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보

며 진로설정에 대한 확신도 강해졌다고 말하였다.

“간호사도 감염이 많이 됐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건 의료인이었다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뿌듯해요. 직업으로 간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줬어요.”(참여자 7)

“평소 실습 때 봤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딱딱하

고 할 일 만하고 그런 분들 같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다들 내려가서 열심히 해주신 거잖아요. 진짜 간호사는 역시 간호사다, 직업의식이 남다른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참여자 6)

3.8.2. 긍정으로 나아가는 힘이 모여짐

이 주제모음은 ‘적절한 방역체계를 통한 극복에 대한 믿음이 증가함’, ‘낙관적인 방향을 기대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현 상황을 피하지 않는 의료진과 노력하는 사람들,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COVID-19 K-방역 등을 믿으면서 현명하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CNN이랑 프랑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의 COVID-19에 대한 대응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고요. 한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한 번쯤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바이러스가 없을 때 더 행복하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거 같아요.”(참여자 2)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비확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팬데믹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 1범주 ‘걱정을 담고 있는 일상의 연속’은 ‘실시간 변경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걱정이 증가함’, ‘일상 그대로 지내고 싶어함’의 2가지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전염병 팬데믹에서 자신의 계획과 관계없이 바뀌는 일상생활과 주변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원래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며 안심하려고 하였다.

이 중 ‘실시간 변경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걱정이 증가함’에는 특정 종교 관련 집단감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 마스크 구입 대란 등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및 대중매체의 뉴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간호대학생들은 COVID-19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다. 이 시기 정부 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 현황 및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대처

를 도모하였다[8, 31]. 메르스 감염 후 간호대학생의 신종 감염병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발생의 대처 관련 제반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보호받을 만한 장비 제공의 중요성을 거론하였다[28]. 감염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간호대학생들은 정보제공의 긍정적인 측면 이외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가짜 뉴스로 인해 혼란함을 경험하였는데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연구[1]와 같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생 전염병 감염관리에 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상 그대로 지내고 싶어함’은 간호대학생이 감염으로 인한 걱정을 토로하면서도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하여 COVID-19 확진자에 대한 접촉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몸에 와 닿을 정도로 실감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잘 해결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좀 더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변화 경험을 연구한 결과[4]의 하위 구성 요소로 제시된 ‘안도감과 종식 기대감’과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두 번째 범주는 ‘COVID-19에 빼앗긴 일상 속 투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함’, ‘전염병을 쫓는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봄’의 주제모음이 포함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대중매체 및 안전경보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COVID-19 감염 현황을 알게 되었다. 아직 백신이 없고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방안을 찾고 정부의 현황 브리핑을 포함한 정보에 관심을 지대하게 보였다.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파악한 연구에서 메르스 상황보다 1.5배 높았으며[32] 대학생의 심리적, 환경적 및 행동적 변화를 가져다준 상황이라는 점을[20]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탐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생존법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염병 팬데믹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 성향이 높아지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33].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보도 이외의 통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오류의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며 정부의 감염 대응 대책에 우려를

보였다. 메르스 이후 국가에 대한 신뢰 관련 공신력 있는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이 제기되며[18]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상황이다. 하지만 전염병 팬데믹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대학생의 감염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28] 예비간호사를 대상으로 건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교육 기회를 높이고 명확히 확인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범주인 '두려움과 기대심리에서의 갈등'은 '나와 타인의 이기적인 모습과 마주함', '미래 간호사로 살아가야 하는 길에 혼란해 함'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간호대학생은 COVID-19의 전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될까 걱정하는 시점마다 누구든 잘 지킬 것을 기대하지만 방역수칙의 준수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COVID-19 세대의 정신건강 연구[19]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과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비밀상성의 상황에서 국가를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신뢰는 두려움과 정서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므로[18] 간호대학생의 갈등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행동의 제고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학업과정에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역할을 대중매체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미래의 자신과 대비하면서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메르스 치료에 전격 투입되었던 간호사들이 감염의 두려움 앞에서 영웅으로 서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가족 걱정 등의 이유로 직업정체성의 혼란을 경험을 보고한 연구결과[24]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속 간호사들의 모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공유 시간 및 건강한 전문직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감염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전염력이 높은 COVID-19와 같은 전염병 팬데믹 시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의 확대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34] 더욱 안심하며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범주는 '외로움과의 싸움'으로 '관계를 위한 심리적 거리가 멀어짐', '원하지 않는 코로나블루와 마주함'의 주제모음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확진자에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COVID-19 확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추후 전염병 대상자들을 간호하는 데 제약이 되어질 수 있다. COVID-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 소통에 관한 연구[19]에서 제시한 바 대로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 특정 종교나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시민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관계의 기회가 대폭 줄면서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가운데 외로움을 토로하였다. COVID-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불안, 공포 및 외출 제한으로 우울함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4], 일반대중이 우울,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19]와 일치한다. COVID-19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언컨택트 사회문화가 형성되고 있다[9]. 점점 대인 간 대면 접촉의 기회가 축소되는 만큼 코로나블루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지는 가운데 체계화된 정서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거론되고 있다[19].

다섯 번째 범주는 '변경된 수업운영 방침에서의 혼란과 적응'으로 '선택사항이 아닌 비대면 수업방식에 맞추어야만 함', '기대하지 않는 비대면 수업으로 기대가 생김'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COVID-19 상황에 맞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운영방식에 대한 일관성 부족 및 낮은 수업방식에 대한 불편감을 상당히 호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수업방식에 적응하고는 자신들의 삶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런 결과는 일반대학생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0,36]

와 일치한다. 교육현장은 COVID-19로 인해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주도적 행동이 요구되는 학습하는 시대로 앞당기는 계기가 제시하고 있다[37]. 하지만, 원활한 교수학습을 위한 물적 자원이나 수업운영 방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 효과를 내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다. 기술적 의존성의 문제나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 의지가 낮은 경우 과제의 증가, 플랫폼 관련 불만, 출결관리 등의 부정적 요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효과성은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17]. 상대적으로 등하고 이동시간과 경비 절약의 경제적인 측면과 시간적, 공간적인 유연성을 장점으로 거론하였으며[17] 이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교수-학생과의 상호작용의 방식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여섯 번째 범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대처능력의 향상'이었다. 이는 '극복의 노력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함', '이는 만큼 방역수칙을 생활화 함'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COVID-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에 대해 숙지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대처역량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었다. COVID-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의 대표사항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체 등으로[6] 간호대학생들은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비교적 기본 수칙을 준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WHO 마스크 권고지침이나 30초 이상의 6단계 손씻기의 사항을 세심하게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국민행동수칙 준수 사항의 어려움과 교육의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방역지침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범주인 '성장의 발판'은 '미래 간호사의 삶에 긍정적 의미가 강화됨', '긍정으로 나아가는 힘이 모여 집'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COVID-19 발생 후 언론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력, 특히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일상이 집중조명이 되었다[38]. 간호대학생들은 COVID-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희생을 보면서 몽클함을 느끼며 의료인의 사명감에 대해 깊게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학과 선택에 대한 자긍심 및 확신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4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의료진 응원캠페인 '덕분에 쉼'이 진행되면서[39]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노고에 응원 댓글 및 물품 등으로 물적·심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염병 팬데믹 시 간호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의료진임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된 만큼 학부 과정에서부터 전염병에 대한 심화 교육 및 대처기술의 습득 기회를 마련하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들은 전염병 팬데믹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의료진과 국민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다. COVID-19 발생에 있어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대처를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투명하게 제공한 만큼 감염확산을 제어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35]. 이런 부분은 정부, 국민,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모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COVID-19를 겪으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할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전염병 팬데믹에 대해 근거 있는 낙관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비확진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맞춘 간호대학생의 학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은 총 7가지 범주와 14개의 주제모음과 30개의 주제로 구조화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와 제한, 비대면수업으로의 참여,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대면 접촉의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한 사회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호대학생은 코로나시대의 상황에 상당히 빠르게 적응하며 생존의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거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노력하였다. 전염병으로 인한 확진가능성에 대한 불안, 걱정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정체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얻으면서 자신의 삶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 교육 측면에서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처능력 향상 교육을 계획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임상 측면에서 신규간호사의 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전략적 중재를 고려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간호 연구 측면에서 예비간호인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 및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의식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비확진 간호대학생의 전염병 팬데믹 경험을 확인하였으며 가족이나 지인에서 확진자가 없는 경우로 추후 자가격리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중고 집단감염이 질병관리체계에서 진정되는 4월의 시점에서의 경험을 파악한 것이므로 COVID-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의 경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발생 시점 1년전·후를 기점으로 본질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Y. Kim et al. (2020). Weekly report on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8, 2020). *Public Health Weekly Report*, 13(14), 792-806.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November, 15).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 [3]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November, 15).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Outbreak in Korea.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1152&act=view
- [4]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January, 15). In the quarantine phase, the government raised the alert for infectious diseases to the "caution" level to respond to the confirmed cases of new coronavirus.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IsuelIcdView.do?issueIcdSn=167>
- [5]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January, 2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ectious disease crisis warning stage "Caution → Alert" upgrade.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5889
- [6]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February, 23). Coronavirus Infection-19 Pan-Government Countermeasures Council Briefing.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064&contSeq=353064&board_id=140&gubun=BDJ
- [7]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2020. March, 12).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1500&contSeq=1500&board_id=311&gubun=ALL
- [8] H. J. Ju & B. J. Jang. (2020). Research on the efficiency of infection disease management systems: focused on region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4(2), 353-375. DOI :10.18398/kjlgas.2020.34.2.353
- [9] Y. I. Bae & H. R. Shin. (2020). Corona 19, accelerate the untact society. *Issu & Analysis*, 1-26.
- [10] J. H. Son. (2020). Korean education system after Corona 19. *The Radical Review*, 84, 74-93.
- [11] Ministry of Education. (2020. March, 17). All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nationwide will be delayed for 2 weeks.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0044>
- [12] S. H. Kim & S. M. Cheon. (2020). A Case study of online class operation and instructor's difficulties in physic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in universi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1, 9-26.
- [13] W. Y. Jang, M. J. Choi & H. G. Hong. (2020)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Non-face-to-face experimental class at university with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937-966. DOI :10.22251/jlcci.2020.20.17.937
- [14] B. Y. Kim & S. W. Han. (2020).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involuntary university online lecture by corona 19.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 7-31. DOI :10.241173/jge.2020.10.13.1

- [15] H. K. Jung. (2020).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and testing during the Corona 19 pandemic.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92-412. DOI :10.15702/mall.2020.23.3.392
- [16] M. J. Kim & D. S. Chang. (2020). Metaphor analysis of student-athletes' perception of covid-19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1(3), 81-102. DOI :10.14385/KSSP.31.3.81
- [17] H. J. Chung, A. L. Kim & H. N. Joo. (2020). In the COVID-19 Crisis, a Study on the Types of Perceptions on Online Class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Instruction*, 20(18), 1359-1381. DOI :10.22251/Jlcci.2020.20.18.1359
- [18] D. H. Lee, J. Y. Kim & H. S. Kang. (2016).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55-383. DOI :10.22257/kjp.2016.06.35.2.355
- [19] E. W. Lee. (2020). How are your mental health, Corona 19 times. *Issue & Analysis*, 5, 1-25.
- [20] J. H. Kang, A. R. Bak & S. T. Han.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5), 289-297. DOI :10.21184/jkeia.2020.7.14.5.289
- [21] H. J. Kim & H. R. Park. (2017).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stress of general hospital nurses after the epidemic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fec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2), 179-188. DOI :10.22650/JKCN.2017.23.2.179
- [22] S. O. You & H. M. Jo. (2019). The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Tuberculosis Pati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649-662. DOI :10.35873/ajmahs.2019.9.12.058
- [23] M. S. Kim. (2015).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82-392. DOI :10.5977/jkasne.2015.21.3.382
- [24] J. Y. Kim. (2017). Nurses' experien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atients car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185-196. DOI :10.5762/KAIS.2017.18.10.185
- [25] Gostin, L. O. & Berkman, B. E. (2007). Pandemic influenza: ethics, law, and the public's health. *Admin. L. Rev.*, 59, 121.
- [26] Devnani, M., Gupta, A. K. & Devnani, B. (2011). Planning and response to the influenza A (H1N1) pandemic: ethics, equity and justice. *Indian journal of medical ethics*, 8(4), 237-240.
- [27] Ehrenstein, B. P., Hanses, F. & Salzberger, B. (2006). Influenza pandemic and professional duty: family or patients first? A survey of hospital employees. *BMC Public Health*, 6(1), 311-313. DOI :10.1186/1471-2458-6-311
- [28] Y. S. Kim & S. S. Hong. (2019). Awareness about pandemic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33(3), 326-339.
- [29]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e, R. & King, M. (2nd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4-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30]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pp. 310-3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31] D. G. Park. (2020). The Problems and Lessons of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With the Case of COVID-19.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17(3), 127-150.
- [32] S. H. Shin & O. J. Baek. (2020).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act of Event, Health Beliefs and Adherence to Self-Care Guideline for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11(10), 337-348. DOI :10.15207/JKCS.2020.11.10.337
- [33] Y. P. Bao, Y. K. Sun, S. Q. Meng, J. Shi & L. Lu. (2020). 2019-nCoV epidemic: Address Mental Health Care to Empower Society. *CORRESPONDENCE*, 395(10224), E37-E38. DOI :10.1016/S0140-6736(20)30309-3
- [34] M. J. Choo. (2020). COVID-19 Calls for Stronger Public Health: Don't Miss the Golden Hour. *Public Health Affairs*, 20.1. DOI :10.29339/pha.20.1
- [35] M. S. Lee. (2020). Fragmentary Thoughts about Code of Conduct and Risk Communication to Prevent and Control COVID-19 in Korea, 2020. *Korean J Health Educ Promot*, 37(1), 103-107. DOI : 10.14367/kjhep.2020.37.1.103

- [36] S. N. Kim. (2020). The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on-line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Instruction*, 20(7), 477-491.
DOI : 10.22251/jlcci.2020.20.17.477
- [37] J. H. Oh. (2020). COVID-19's Advanced Future, from an Age of Education to an Age of Learning. *Issue & Analysis*, 1-25.
- [38] Thanks to the medical staff, we're able to overcome the Corona 19 crisis. Quarantine authorities, cheering campaign.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0500017?input=1195m>
- [3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pril, 23, 2020). "Thanks to the Badge" with gratitude and respect, it is awarded to the Daegu medical staff.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4181

양 정 하(Jeong-Ha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교수학습, 회복탄력성
- E-Mail : jhyang@jeiu.ac.kr

이 윤 주(Yun-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 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자살
- E-Mail : daminzimin@naver.com